



볼 빨간 사춘기의 일탈~사랑

수 킬로미터의길가에 줄 지어 서있는 노란 색 버스들~ 밤 11시쯤 일산 어느 학원가의 풍경이었다.

짧은 한국 일정에서 스치며 본 모습은 하원 시키는 부모님들의 차와 뒤엉켜있는 학생들.

마음 속 한쪽엔,

밤 10시나 11시쯤 잠 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는 것도 늦다고 말하는 캐나다인 선생님들도 있지만,

어쨌든 하루 8-9시간을 취침하는 밴쿠버에서의 우리 아이들은 참 복받은 아이들이다.

그걸 아이들이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라주길 항상 바라지만, 사실 얘기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다. 각자가 마음 속 깊이 느껴야 아는 것이니 말이다. 한국에서 공부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전투적인지 이번 방문에서 설명회를 가지며 또 한 번 알 수 있었다.

유학을 오면 다 잘 될거라는 부모님들의 꿈을 지지해 주기 보다는 항상 현실을 설명하게 되는 나는 별로 좋은 상담가는 아닌 것 같다. 이 곳이 기회가 될수는 있으나 도파치나 막연하게 집착 되는 차선책이라고 확신하며 큰 성과가 있으리라는 어른들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기에 신중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.

대다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타국에 보내며 음식은 잘 먹는지, 공부는 잘 하는지, 몸이 아프지는 아닌지는 걱정하겠지만 정작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, 이 시기의 고민은 무엇인지, 어느 시점이 되면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어찌할 지 등을 고민 해 보는 부모님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? 싶다.

사실, 아이들과 소통 하는 방법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.



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중,

걱정 고무신 같은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기 보다는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이성이나 동성 친구들과의 추억 이야기를 열어본 다던지, 그러면서도 가끔은 눈물샘을 자극 할 감동적인 경험담을 들려주며 그 시절 연애인에 열광 했던 우리도 너희와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.나 또한,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다. 그래도 어른인데, 너무 가벼워 보아진 않을지 등을 늘 재웠기 때문이다.

3년 전쯤이었을까?

이 시기, 집 안에는 연애의 세포들이 우글거렸던 시기가 있었다. 첫 번째 주자가 몰래 이성 친구를 맘에 두기 시작할 무렵 주변 몇몇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상대방 아이의 무례한 행동과



이성이 내 귀에 들렸고,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빨리 알아 차리게 된 어느 날, 나와 아빠는 고민을 한 참 하였었다. 막아야 하는건지 지켜 봐야 하는건지... 더 기다리지 못 하게 된 이유는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로 우리 아이가 다칠까 봐 였다.

유학생이었던 남학생의 엄마와 자리를 갖게 되었고, 약할 수밖에 없는 여자인 내 아이의 입장을 설명하며 당신 아이의 인격에 실망을 갖게 되신 엄마는 눈물을 보이시며 미안하다고 하셨다.

이렇게 한바탕의 소동은 일단락되었고 이것이 엄마로서 갖는 나의 첫 경험이었다.

이런 일이 있을 후 1년쯤 지났을까?

생각지도 못 했던 아이들 중 한명이 교제를 시작하여 또 한번 엄마로서 위치를 되 돌아 보는 일이 있었다. 주말이 되어, 다 함께 둘러앉아 영화를 보던 우리들은 노트북과 연결 된 텔레비전 화면 한쪽에 계속 올라오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수 있었고, 오빠와 다정하게 나누던 대화가 공개되던 그 때엔 서로 속눈치만 보며 가슴 쿵쿵이던 기억이었다.그렇게 수줍은 비밀을 모두 알아버린 교제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치만 살피던 그 아이, 우리에게는 웃음으로 가끔은 놀림으로 기억되는 추억이 되었다.

그때에도 고민을 한참 했었다. 상대방 아이는 너무도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들이었으니, 이 일을 어찌 해결해야 현명한 지를 나름은 무게감이 큰 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게 내 입장이다.

막상 이 고민보다 더 뒷목을 잡았던 이유는, 우리 아이의 헤어지지 않겠다는 선언 때문이었다.

같이 울고 달려며 이 일도 어찌어찌 조용히 마무리 되었지만, 이 시절 만나는 이성 친구는 대부분 얼마 안 되어 이별하게 되며 상처만 남을게 뻔한 걸 우리 어른들은 너무도 잘 알기에 그저 스치는 바람이었지 하며 지나칠 수 없는게 여자 아이의 엄마 입장이다.

지금도 상대방 아이의 엄마는 이 일을 전혀 알지 못 한다. 그래서 어쩔 어른의 관계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며 소식을 전하는 사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.

비록, 그 때 나의 멘탈은 만감이 교차하였지만,

함께 산 세월이 몇 년, 선생님으로 인연이 맺어진 게 10년이 넘어 간 기간인만큼~~

이제 교제 기간 일주일 조금 넘었던 아이에게 내 자리가 밀렸다는 생각이 참으로 감당이 안 되었고 질투 아닌 질투를 느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.

집안에서 물은 그 때도 지금도 여전히 있다. 세컨더리 재학 동안은 이성 교제와 음주, 흡연 외박 등이 안 되는 규칙이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참 고지식한 문화라 하겠지만, 이곳은 어쨌든 공부하는 곳이고 여럿이 함께인 만큼 제재가 없을 순 없다. 어찌 되었든, 이렇게 시작된 우리 아이들의 연애사는 그 후에도 두 세번 더 있었지만, 크게 다치지 않고 지나쳤고 처음처럼 비밀스럽지 않게 적당히 오픈하며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자연스러움이 되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. 내가 알 수 없는 그들(우리 대학생 아이들)만의 공유 될 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...ㅋㅋ

오늘 함께 차를 타고 오며 첫 연애사의 주인공이었던 아이는 내게 말을 한다. 그 때 그런 경험들로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나 말들에 신경이 쓰이게 되었고,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부모님처럼 자기를 보살펴 주었기에 그 울타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귀한지 알고 있다며 녀살을 부린다.

그러면서도 곧 이루어질지 모르는 소개팅에 들떠 재잘거리는 아이의 소리가 사실 참 듣기 좋다.

이제는 대학생이 되었고, 어쩔 일탈이라 불리는 일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나이일텐데도 얘기 나누고 조심해 주니, 이런 게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부모와의 소통이 아닌가 싶다.

기분을 지킬 수 있다면,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고 해야 하는 목표만 잊지 않는다면 맘껏 세상을 즐기기를 바라는 게 엄마이모의 희망이다. 학기 중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, 각자가 하는 일도 책임감 있게 하며, 여행도 연애도 모든 것을 예쁘게 즐길 수 있는 나이임을 기억하였음 좋겠다.

이 젊은 날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~

그리고 열정 또한 나이가 있음을 잊지 않는 지성인이 되기를 오늘도 너희를 위해 우리는 응원하는 바이다.^^①